

「假明人頭上에 一棒」과 儒敎의 眞髓 (一)

저자 미상

五月 八九 兩日에 發行된 本報 第三十六號와 第三十七號의 第一面에 連續하여 揭載된 桓民 한별君의 寄書「假明人頭上에 一棒」一篇은 世論의 沸騰을 招來하며 儒林의 怒忿을 喚發하여, 그에 對한 論難攻華의 聲이 日高滋甚한 模樣이니, 이는 現今 우리 朝鮮 社會에 在하여 一面 不幸한 巴요 一面 歡迎할 바라. 何故오 하면 老小新舊가 衝突함은 곳 社會의 決裂이니 이 不幸한 巴요, 互相論難 討議한 結果 眞理가 將次 發現될지니 이는 歡迎할 바-라. 그러나 惟想컨대 朝鮮民族의 前途는 實로 險하고 惡하도다. 이는 本報 出刊 初에 天下에 聲明한 바이어니와, 그 許多한 困難障害와 荊路陷穽을 吾人이 엇지 可히 다 헤아려 測量할이요. □라 然則 如此한 時를 際하여 吾人은 如何한 態度를 取하며 準備를 作할가? 吾人은 오즉 朝鮮民族의 한 덩어리 되기를 切願熱望하며, 單一한 朝鮮民族으로서 一大 文化를 樹立하여 天下에 光明을 照하며 萬世에 遺風을 傳함에 엇지 그 老小男女와 新舊貴賤과 職業異同과 宗教殊別이 有하리오. 그 目的하는 바가 一이며 그 生長한 바가 一이 아니뇨? 아-! 任重道遠한 莫大困難을 當한 朝鮮民族아! 그대의 손에 무엇이 잇스며, 그대의 몸에 무엇이 잇나뇨? 武器가 무엇이며 힘이 무엇이며 所恃가 무엇인가? 오즉 가슴에 끌는 피와 마음에 췌는 矜각과 兄弟가 슴하는 덩어리 힘맞게 아모 것이 업지 아니 하뇨. 그런즉 余는 切切히 願하노라. 眞理를 爲하여야는 熱熱히 討議論爭하는 勇과 眞實함이 有한 同時에 兄弟의 義를 무엇으로 끈코 베히랴오? 즉 긋고 긋게 덩어리지기를. 이가 곳 諸君의 依支할 巴요 諸君의게 所望을 주는 바라.

社會는 複雜한 것이라. 卞라 그 思想이 또한 惟一不二하지 못하고 複雜多端하니, 이 複雜한 가운데 能히 取舍選擇을 善히 하여, 文明을 促進함이 所謂 萬善의 綜合으로 國民性의 偉大를 表示함이며 文明의 大成을 期하는 所以라. 思想이 單一하고 言論 感情이 劃一한 中에 엇지 勃勃한 進取의 氣象과 遠大한 文化의 曙光을 바라리오. 故로 新聞은 社會의 公器 卽 民衆의 表現

機關으로 自任하는 바 社會의 表象과 思想을 如實히 表現하여서 讀者의게 提供하여, 多端한 材料 中에 取捨選擇의 自由를 有케 하나니, 그럼으로 新聞의 記事는 一端이 아니오 多端하여 善惡을 兼具하는지라, 그 本意-勸善懲惡 하여 人心으로 하여금 歸正케함에 在함은 勿論이오, 또한 社說로 新聞社 所支의 主旨를 闡明하여서 時事를 論評하며 思想을 批判함은 當然한 일이 이니와, 一面으로는 各 方面 論文 寄稿를 綜合 揭載하여서 天下輿論에 呼訴함이 엇지 또한 新聞의 職責이 아니라 하리오?

余는 이에 『假明人頭上에 一棒』을 揭載한 本旨를 說明하며 儒敎의 眞髓를 論學하여서, 是非를 判斷하여 一面 老小의 決裂을 防하며 一面 新聞의 職責을 盡하는 同時에 朝鮮民族이 將次 取할 바 文化樹立의 一路上에 一助를 寄하고자 하노라.

爲先 本論의 前提로 이에 論述할 바는 論難 攻擊과 批評의 態度니, 吾人은 반다시 君子의 態度를 取하여야 할지라. 孔夫子 曰 且而 其爭也 君子로다 하섯나니, 이는 千古의 聖訓이라. 苟 吾人은 論難 攻擊할 새와 批評의 筆을 執할 새에 오즉 義理를 들어 從容히 論斷할 것이오, 決코 感情으로나 舊激으로 하지 못할지니, 大概 義理를 擧하여 立論하라하면, (一) 論評 맞는 사람이나 言辭나 文章의 眞意와 態度와 表現 方法人을 精密히 調査하며, 嚴正히 判斷하여 그 本意를 解得한 後 (二) 萬共通의 義理에 卽하여 그 是非를 分辨할지니, 萬一 不然하여 筆者의 本意를 誤解하거나 曲解하며 文句 末端에 拘折하여 徒히 喧譁를 極하면, 이는 批評의 本意를 脫함이 되야 批評 맞는 者의 良心上에 威嚴을 施치 못하며, 짜라 그로 하여금 首肯케 하지 못 하나니라. 故로 西哲은 갈오대 批評은 內在批評이라야 하나니라 하얏도다. 內在批評의 意는 苟 前述한 바와 如하니 批評 맞는 者의 內容을 理解 體得한 後 그에 立하여 評論을 加함이로다. (三) 그러하고 相對者의 眞意를 充分히 理解하고자 할진대, 몬져 自己를 虛明淡靜하게 하여야 할지니, 自己 中心에 先入注가 잇고야 엇지 他를 充分히 理解할 수 잇스리오. 靑黃赤白墨 五色을 如實히 彩色하라 하면 그 本質은 無色이라야 할 것이 안인가? 이 苟 爭也 君子의 態度로다.

然則 『假明人頭上에 一棒』의 眞意는 무엇이며 그 表現 方法은 엇더하뇨?
(未完)